"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전북도도 동참 해결해야"

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돌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도정 현안 질의 쏟아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29일부터 '2022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위드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됐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본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도내에는 무주군만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따르는 평가에 적극적인 대비로 재정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집행규모를 확인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예산에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 됐는데, 전북도의 대책을 묻고, 소상공인과 지역중소업계의 생계가 걸린 예산인 만큼 국비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군산 시민뿐 아니라 도의회마저 전북도의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간 협의체 등 전북도 전체가 함께 동참해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인구정책 예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인구유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 지역에 도내에서는 동부권 5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도내 동부권 예산 규모를 확인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지방 소멸 방지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대선 D-100일' 전북선관위는 대통령선거 100일 앞두고, 29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 경기전 앞에서 투표하는 모습의 석고마임 퍼포먼스와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꿈·희망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

송하진 도지사,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관련

청년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농업의 혁신을 통한 농생명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에 전국 최초로 준공됐다.

"농생명 생태문명 메카 진입 최적 대상지 이유로 연구개발 인프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한 점 등"

Q.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4개소의 혁신밸리 중 가장 먼저 준공식을 가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우선, 준공하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농식품부와 김제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님, 농민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북(김제)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농업까지 아우르는 농생명 생태문명 산업의 메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Q. 지난 2018년에 전북 김제가 전국 4개소 혁신밸리 중 가장 최적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의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농생명 S/W 융합 클러스터 등을 통한 ICT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점.

둘째, 2011년부터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유리온실을 통해 자체 스마트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창업교육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운영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셋째,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농업환경은 물론 교통(철도, 고속도로 등) 및 생활환경 여건 등의 입지조건이 탁월한 것입니다.

Q.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조성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농업용수 문제와 물고사리, 독미나리 등 멸종 위기식물 보호 등으로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소통해 지하수 개발 없이 금강 및 용암천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물고사리 서식지는 원형보전, 독미나리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이식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이제 지난해 2월 지역주민 등과 원만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드디어 전국 4개소 중 가장 먼저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어떤 시설이 조성됐나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는 21.3ha로 축구장 면적의 30배 규모로, 창업보육 실습농장 2.3ha, 임대형 스마트팜 4.5ha, 스마트팜 실증온실 1.6ha, 혁신밸리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0.4ha 정도입니다.

시설별 핵심기능은 스마트팜 창업보육 및 스마트팜 임대운영, 스마트팜 실증연구,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총 20개월 과정으로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죠.

또한, 교육우수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연간 30만원 임대료로 3년간 제공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온실과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ICT기자재 등을 개발·보급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와 농가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능숙하게 이끌 청년농업인을 키우고, 최적의 생육환경을 마련하기 연구개발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전북의 농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가는 길을 탄탄히 다져줄 것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호상 기자

민주당 선정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언과 함께,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 문제, 방치된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와 가스히트펌프(GHP)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의 환경 악화 문제 등 환경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실태와 근로감독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등 정부의 근로감독체계에 혁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청년실업 해소와 임금체불·중간착취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문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9일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현장의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풀어가는 이원택 의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다면평가, ▲정책자료집 발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그 성과가 당과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벼 병충해 신속 조사 요구, ▲공익직불금 제도 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축산분뇨활용한 바이오에너지시설 활용 확대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전국 섬주민 1천원단일요금제 시행 요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설립 요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요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산용지 300ha반영 요구 등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성과로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등을 수상 바 있다.

신영대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선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임을 감안해 당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민생 국회 실현', ▲文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전 평화국감'에 주력했다.

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로부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약속, ▲유명무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문제 지적,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충',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사업 오류' 등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신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와 호주 LNG 사업에 4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고작 5900여억원 회수한 한국가스공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상권 살리기 의지 '확고'

조지훈 전 경진원장 '골목상권 드림 축제' 동참

코로나로 위축된 상인 위로 10주년 맞은 청년몰 미래 응원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주시가 주최한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에 참여해 전주남부시장, 전주중앙상가, 신중앙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또다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땀으로 적시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응원했다. 특히, 10주년을 맞은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을 찾아 청년몰이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성장하는데 함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주시가 주최한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에 참여해 전주남부시장, 전주중앙상가, 신중앙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현재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축제가 단순한 소비행사가 아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에 따라 적극 동참한 것이다.

더욱이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 정성을 쏟아 왔던 만큼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 상권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조 전 원장은 우선, 전주남부시장의 상인들을 만나 지난달 29일 방문 당시 청취한 애로·건의사항 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담고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영 정상화를 응원했다.

특히, 전국적인 성공사례이자 남부시장의 상징이 된 청년몰이 10돌을 맞아 마련한 '청년몰 포럼'에도 들려 청년몰 대표들에게 10주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청년몰을 멋지게 꾸며내 누구나 공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사람 중 하나였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성장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뿌듯하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면서 "청년몰의 발전 방안은 물론 지역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대표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틀간 중앙상가시장,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손을 잡고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어 냈듯이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봉현 신중앙시장상인회장은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줬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진정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친구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직격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 만큼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런 행보를 적극 응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지훈 전 원장은 앞으로도 전주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시며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며 이를 공약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